

2026. 6. 11.(목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6년 6월 11일 오전 10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

도시관리과장 신동권 02-2133-8370

도시관리정책팀장 이현정 02-2133-8372

사진없음 ☒ 사진있음 ☐ 쪽수 : 2쪽

서울도시공간포털 <http://urban.seoul.go.kr>
(도시건축공동위원회) (<https://commission.eseoul.go.kr/>)

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

☐ 금일 위원회 상정 안건 : 총 1건

○ 수정가결 : 1건

※ 자문, 보류, 부결, 보고 안건은 보도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

※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불임 소관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불임 개최결과 1부. 끝.

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

【 2026.6.10.(수) 14:00 】

■ 총 1건 (심의 1건)

연	안건명	개 요	개최 결과	비고
1	<심의> 한양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(안)	○ 위 치 : 성동구 행당동 19번지 일대(21,800.7㎡) ○ 내 용 :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추진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(안) - 용도지역: 제2종(7층)·제3종 → 준주거지역 - 밀도계획: 용적률 500%, 높이 160m, 지하4층/지상49 층 - 공공기여: 사회복지시설, 공공임대주택 209세대	수정가결	<공공주택과> 역세권주택팀 팀장 : 이현철 담당 : 김화영 (2133-7060)

2026. 6. 11.(목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6년 6월 11일 오전 10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

도시관리과장 신동권 02-2133-8370

도시관리정책팀장 이현정 02-2133-8372

사진없음 ☒ 사진있음 ☐ 쪽수 : 2쪽

도시계획국 누리집 <http://urban.seoul.go.kr>
(도시건축공동위원회) (<https://commission.esoul.go.kr/>)

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개최결과

☐ 금일 위원회 상정 안건 : 총 3건

- 조건부가결 : 2건
- 수정가결 : 1건

※ 자문, 보류, 부결, 보고 안건은 보도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.

※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불임 소관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불임 개최결과 1부. 끝.

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개최결과

【 2026.6.10.(수) 15:00 】

☒ 총 3건 (심의 3건)

연번	안건명	개요	개최결과	비고
1	<심의>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(역삼동 702-24번지) 기반시설 등 충분여부 심의	○ 위 치 : 강남구 역삼동 702-24 일대 (면적: 521.70㎡) ○ 내 용 :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등 충분여부 심의(안) - 용도지역: 일반상업지역 - 밀도계획: 용적률 1,159.31%, 높이 90.5m, 지하3층/지상25층 - 건물용도: 관광숙박시설(관광호텔업)	조건부가결	<도시관리과> 도시관리지원팀 팀장 : 배현경 담당 : 장은교 (2133-8384)
2	<심의>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(대치동 890-16,20번지) 기반시설 등 충분여부 심의	○ 위 치 : 강남구 대치동 890-16,20 (면적: 2,759.7㎡) ○ 내 용 :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등 충분여부 심의(안) - 용도지역: 일반상업지역 - 밀도계획: 용적률 1,158%, 높이 107.9m, 지하9층/지상24층 - 건물용도: 업무시설	조건부가결	<도시관리과> 도시관리지원팀 팀장 : 배현경 담당 : 장은교 (2133-8384)
3	<심의> 자연경관지구 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제한 완화 일괄 재정비(안)	○ 위 치 : 서울시 일대 (면적: 2,708,619㎡) ○ 내 용 : 자연경관지구 중첩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제한 완화 계획 일괄 재정비 - 내용: 건폐율 30% → 40%, 높이 12M → 16M, 완화사항 등	수정가결	<도시관리과> 도시관리운영팀 팀장 : 김규태 담당 : 양영지 (2133-8389)

2026. 06. 11.(목) 석간용
이 보도자료는 2026년 06월 11일 오전 10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주택실 공공주택과

사진없음 ☐ 사진있음 ☒ 쪽수 : 3쪽

공공주택과장	하대근	02-2133-7050
역세권주택팀장	이현철	02-2133-7080
관련 누리집 (메뉴)	http://news.seoul.go.kr/citybuild 상단 <주택건축> → 좌측 <주택공급>	

성동구 한양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

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

-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개최결과 “수정가결”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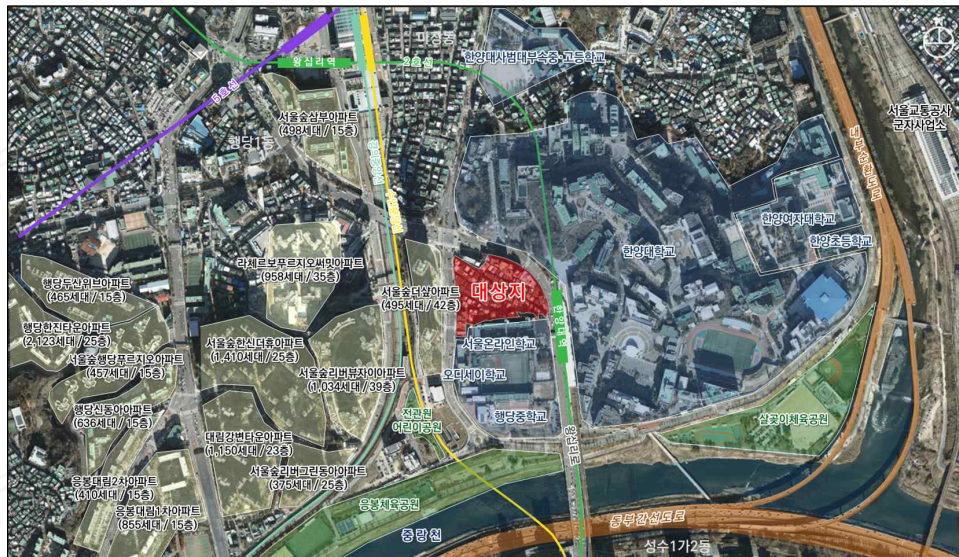
- ☐ 서울시는 2026년 6월 10일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“성동구 한양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안)”을 “수정가결” 했다고 밝혔다.
- ☐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세권으로 북측으로 왕십리역, 남측으로 동부간선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성동구 내 핵심 교통 요충지들과의 연계성이 높은 지역이다. 또한, 대상지 남측에 중랑천과 서울숲이 위치하고 있어 도심속 녹지공간과의 접근성도 좋은 지역이다.
- ☐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이하),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되며, 지하4층~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858세대가 건립될 예정이다. 이 중 208세대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되며, 특히 공급 세대의 50%는 신혼부부

를 위한 ‘미리내집’ 으로 향후 공급될 계획이다.

- ☐ 또한, 생활가로변(살곶이길)에 사회복지시설을 공공기여 시설로 조성하여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의 기반 마련 및 포용적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, 한양대역에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.
- ☐ 서울시는 “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보하여 주민 생활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붙임 : 위치도 및 조감도 각 1부.

☐ 위치도



☐ 조감도



※세부사업계획 수립 시 변경될 수 있음.

2026. 6. 11.(목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6년 6월 11일 오전 10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

사진 없음 ☐ 사진 있음 ☒ 쪽수: 5쪽

도시관리과장	신동권	02-2133-8370
도시관리지원팀장	배현경	02-2133-8383
관련 누리집 (메뉴)		

**테헤란로 역삼동 702-24번지 일대 관광호텔 건립
강남 비즈니스 관광 인프라 대폭 확충**

- 역삼역~선릉역 사이 노후 건축물 개발로 지상 25층 지하 3층 규모 관광숙박시설 조성
- 관광호텔 건립으로 비즈니스 기반 고용 창출 및 이면부 상권 활성화 기대
- ‘휴게형 공개공지’ 조성으로 도심 속 휴식·녹지 공간 확보
- 고밀 개발로 테헤란로의 글로벌 관광 인프라 확충

□ 서울시는 2026년 6월 10일 제4차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, ‘역삼동 702-24번에 대한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반시설 등 충분여부 검토 심의(안)’을 “조건부가결” 했다고 밝혔다.

□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역삼역과 선릉역 사이 테헤란로 이면부에 위치한 일반상업지역이다. 인근에 업무지구가 밀집한 핵심 입지임에도 불구하고, 기존 지상5층 규모의 노후 건물은 현재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토지 활용 및 도시경관 측면에서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부지이다.

□ 건축계획(안)에 따르면, 대상지는 대지면적 약 522㎡ 규모로 지상 25층·지하 3층의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. 저층부에는 개방형 라운지등 가로활성화 시설을 배치하고, 상층부에는 관광숙박시설을 조성해 테헤란로 일대 숙박기능을 확충할 계획이다. 또한 용적을 인센티브 적용 등을 통해 약 1,159% 수준의 고밀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이다.

□ 이번 심의에서는 도로, 교통, 하수 등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총 8개 기반시설의 충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. 도심 내 부족한 휴게·녹지 공간 확충을 위해 공개공지를 추가로 설치하고, 대상지 주변 노후된 하수관로도 정비하여 침수 및 지반 침하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.

□ 특히 IT·금융·스타트업의 중심지인 테헤란로는 국내외 비즈니스 출장객의 숙박 수요가 높고, K-컬처 확산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증가하고 있어 고품격 숙박시설 확충이 필요한 지역이다. 이번 개발로 인해 테헤란로 일대가 글로벌 비즈니스 및 늘어나는 관광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.

□ 아울러, 관광숙박시설 운영에 따른 상시 고용 창출과 국내외 투숙객 유입은 이면부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테헤란로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안대회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“최근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대응하여

테헤란로 일대에 양질의 관광숙박공간 공급을 확충하고, 도심 속 휴게·녹지 확보를 통해 도심 환경의 질을 개선하여 도심 환경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”이라며, “앞으로도 강남 업무지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”고 말했다.

□ 위치도



□ 조감도 ※ 향후 관련 심의 및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

2026. 6. 11.(목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6년 6월 11일 오전 10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동행·매력
특별서울

SEOUL
MY SOUL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

도시관리과장 신동권 02-2133-8370

도시관리지원팀장 배현경 02-2133-8383

사진 없음 □ 사진 있음 ■ 쪽수: 4쪽

관련 누리집
(메뉴)

강남구 대치동 890-16, 20번지 일대 업무시설 건립 테헤란로 비즈니스 축 강화한다

- 지하 9층~지상 24층 규모 업무시설 조성, 보행자 중심의 개방형 오픈스페이스 확충
- 국제업무·MICE 개발과 연계해 동남권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 기대

□ 서울시는 2026년 06월 10일 개최한 제4차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수권 분과위원회에서 「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강남구 대치동 890-16, 20번지 기반시설 등 충분여부 검토 심의(안)」을 “조건부가결” 하였다고 밝혔다. 이번 심의 통과로 강남 도심 업무벨트의 중심축인 테헤란로 일대에 고도화된 비즈니스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현대적 업무시설이 들어서게 된다.

□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선릉역 인근으로,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도 핵심 입지에 해당한다. 이 지역의 뛰어난 입지적 특성과 변화하는 개발 여건을 고려해, 업무 기능을 극대화하고 전략적 개발을

유도할 수 있도록 건축계획을 수립했다.

□ 건축계획(안)에 따르면, 대상지는 대지면적 약 2,760㎡ 규모로, 지상 24층, 지하9층 업무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. 저층부에는 가로활성화를 위한 전시장과 다양한 코워킹-협업이 가능한 회의실을 배치하고, 상층부에는 대규모 업무시설 공간을 확충하였다. 또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을 통해 약 1,158% 수준의 고밀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이다.

□ 금번 심의에서는 도로, 교통, 하수 등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총 8개 기반시설의 충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. 이면도로에는 보도를 추가로 설치하고, 공개공지는 사업지 주변 모든 도로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 보행자 이용 편의성을 확보하였으며, 녹지·휴게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심 내 부족한 오픈스페이스를 확충하여 쾌적한 가로 환경이 조성되도록 계획하였다. 아울러, 대상지 주변 노후된 하수관로도 정비하여 침수 및 지반 침하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.

□ 아울러, 시는 대상지 개발이 완료되면 테헤란로 일대의 고도화된 중심 기능이 한층 강화되는 것은 물론, 나아가 서울 동남권 전체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견인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 나아가 선릉·역삼 일대의 업무 기능을 확충하고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, 인근 삼성 국제업무 및 MICE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업무·상업 기능 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안대회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“이번 결정은 테헤란로 업무축의 경

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, 양질의 업무 환경을 제공해 국내외 우수 기업들을 유치하는 계기가 될 것”이라며, “앞으로 선릉·역삼 일대와 삼성동 MICE 개발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서울 동남권의 국제 비즈니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<붙임1.위치도>



<붙임2.조감도>



2026. 6. 11.(목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6년 6월 11일 오전 10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 자료

담당 부서: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

도시관리과장	신 동 권	2133-8370
도시관리운영팀장	김 규 태	2133-8387

사진 없음 ☐ 사진 있음 ☒ 쪽수: 4쪽

-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수권분과위원회) 개최 결과 -
- 부암동 등 7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일괄 재정비(안) 수정가결**
-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 및 높이 등 건축제한 일부 완화
- ※ 건폐율 30%이하→40%이하, 높이 3층·12M이하→4층·16M이하

□ 서울시는 2026년 6월 10일 제4차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수권분과위원회)를 개최하고 부암동 지구단위계획 등 7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(안)을 “수정가결” 하였다고 밝혔다.

□ 금번 결정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어 지구단위구역 내 ‘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’을 신속 반영하기 위해, 개별 재정비 추진 중이거나 타 관리 수단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총7개 구역을 일괄 재정비하는 사항이다.

※ ‘24.9월 개정 조례를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여 일괄 재정비

○ 건축제한 완화로 자연경관지구의 건폐율을 기존 30% 이하에서 40% 이하로, 건축물 높이를 기존 3층·12m 이하에서 4층·16m 이하로 완화했다.

자연경관지구	지구단위계획구역
6개 지구	7개 구역
평 창 (1)	부암동
성 북 (2)	정릉3동, 혜화·명륜동
남 산 (2)	회현동, 필동
광 장 (1)	광나루역
능 동 (1)	화양1지구

□ 아울러, 향후 도시계획조례가 변경될 경우 제도 개선 사항이 즉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‘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 및 높이 기준 및 완화사항은 관련 법령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’으로 정비하였다.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완화사항도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없이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.

○ 예를 들어,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등의 건축물 높이는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m 이하(기정 4층·16m 이하), 재개발·재건축사업 등 용적률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24m 이하(기정 5층·20m 이하)까지 완화가 가능해졌다.

□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“금번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를 통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연경관지구 건축규제가 완화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여 민간의 건축행위 활성화가 기대된다.”고 밝혔다.

붙임 위 치 도 1부.

<위치도>

